

발간등록번호

B552146-전직지원팀-2021-0021-01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 다시, 시작 Restart!

다시 잡(Job)은 신중년들의 희망 만들기







# 다시, 시작 Restart!

다시 잡(Job)은 신중년들의 희망 만들기

---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



##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적 경제 불안과 경기 침체로 고용 시장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고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신중년이 존재하기에, 그분들의 ‘나의 인생 후반기’를 통해 공감하고 희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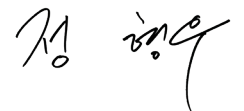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커다란 위기에 도 좌절하지 않고 재기에 성공한 소상공인, 항공업계를 비롯해 금융·관광 등 고용 위기 업종에서 퇴직 이후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를 비롯해 다양한 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또한 기업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중년 고용 문화를 촉진하고, 신중년의 인생3모작을 향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도움관 역할로서의 파트너십을 이루어낸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신중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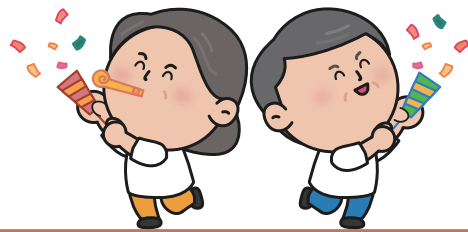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는 생소한 말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많은 신중년에게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불투명한 미래에 따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늙는 것보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처럼 신중년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며, 다양한 경험과 현실 감각을 갖추었으면서도 열정으로 가득한, 오히려 새로 시작하기 적절한 나이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도약을 준비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신중년의 새로운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신중년들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포기 없는 도전을 함께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2021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목차



개인 부문

- 018 내 인생, 다시 봄... 프로 'N잡러'가 되다 대상 / 유홍석
- 024 생애를 다시 설계하자 새 길이 보였다 우수상 / 윤정훈
- 030 경찰관에서 크리에이터로 평생 현역을 꿈꾸다 우수상 / 안서조
- 036 도전하는 맛이 즐거운 '오뎅이 여사' 우수상 / 여희정
- 042 1453번 도전 끝에 손에 쥔 두 번째 명함 장려상 / 이찬우
- 048 서울에서 제주로 재주 살려 디지털 강사로 장려상 / 김광수
- 054 경단녀에서 상담사로 변신 또 다른 경단녀의 징검다리 되다 장려상 / 이미혜
- 060 건강과 웃음 다시 찾고 은퇴자 인생2모작의 전도사로 장려상 / 임영미
- 066 재미와 의미로 채우는 가슴 뛰는 삶 장려상 / 조성복
- 072 모바일 노하우 18년 IT 기업에서 다시 꽃피우다 장려상 / 김진욱
- 078 실패의 아픔 딛고 어르신 돌봄으로 인생 역전 장려상 / 윤연옥



기업 부문 및 유관 기관 부문

- 086 노사발전재단을 만난 것은 신의 한 수  
대상 / 한국후꼬꾸(주), 박재완
- 092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으로 생산성 올리고 평판도 높이고  
우수상 / 주식회사 지에프테크, 정숙명
- 098 신중년 취업 최전방 승리 이끈 연대의 힘  
장려상 /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강기선
- 104 기술 창업 페이스메이커로 새 희망을 선물하다  
장려상 / 성남산업진흥원, 김정대



업종 특화 서비스 부문

- 112 식당 폐업 때 흘린 눈물이 글로벌 기업 취업하며 감동의 눈물로 대상 / 윤현옥
- 118 맞춤 전직 프로그램 통해 다시 여는 제2의 청춘 우수상 / 김군태
- 124 안갯속 '플랜 A' 대신 강사 자격증 따고 이륙 준비 장려상 / 현진호
- 130 누구나 아름다운 풍경 누리도록 약자의 여행 길잡이 되다 장려상 / 신승호
- 136 손주 셋 둔 할아버지? 난 여전히 금융계 현역 강사 장려상 / 빈원호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노사발전재단은 11월 17일 서울 마포구 재단 7층 대강의실에서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적인 인생3모작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축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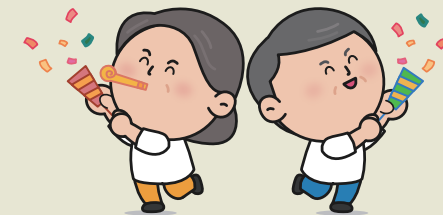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공모전을 통해 전직, 재취업, 창업 등 인생3모작에 성공한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직자 대상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년 친화적 직장을 구축한 기업의 모범 사례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지원 서비스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시, 시작

다시 잡(Job)은 신중년들의 희망 만들기

## 개인 부문

- |           |           |
|-----------|-----------|
| 대상 / 유흥석  | 장려상 / 김광수 |
| 우수상 / 윤정훈 | 장려상 / 이미해 |
| 우수상 / 안서조 | 장려상 / 임영미 |
| 우수상 / 여희정 | 장려상 / 조성복 |
| 장려상 / 이찬우 | 장려상 / 김진욱 |
|           | 장려상 / 윤연옥 |





대상  
유홍석

## 내 인생, 다시 봄... 프로 'N잡러'가 되다

개인 부문 대상을 받은 유홍석 씨는 고희(古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만능 재주꾼'으로 인생3모작을 가꾸고 있다. 도서관 사서를 시작으로 '디카시 시인', 창업 기업의 멘토,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유튜버로 왕성히 활동 중이다. 나에게 신중년은 '자유로움'이라는 그의 삶을 살펴본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연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해요.



육십 중반의 나이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해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왕 시작한 공부, 중국어 자격 시험을 보고 내친 김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까지 바라보고 제주도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만날 기회가 많겠다는 기대감으로 제주도에 입도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 숫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초보 통역안내사인 저에게 일이 들어오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돌아갈 노릇도 아니었고 마냥 일 없이 지낼 수도 없어 소일거리를 찾아 전전했습니다.

2019년 말, 제주의 오름 매니저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난 1976년부터 50년 넘게 꾸준히 제주 여행을 즐겨온 터라 자신 있었습니다. 한라산 등반, 올레길 완주 경험을 살려 자연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이마저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원자가 많을 뿐 아니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모집 기관으로부터 다른 직종으로는 도서관 사서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저절로 도전 의지가 생겼습니다. 평소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분류하는 일을 즐겨 도서관 사서를 희망한 적도 있고, 책을 좋아하는 지인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15년간 이어오고 있는 점도 저와 잘 맞았습니다. 집 근처는 물



론이고 여행을 가셔도 도서관을 즐겨 찾는 저에게는 최적의 일이었습니다. 간절함이 통한 덕분인지 도서관 사서로 선정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이음일자리의 의미와 생애 경력 설계를 비롯한 해당 직무에 도움이 되는 ‘맞춤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이음일자리 사업은 중장년 구직자에게 재취업 및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중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님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어른들에게도 동화가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구나.” 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동화책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마음먹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2모작의 큰 목표를 품게 되었습니다.

제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새날도서관으로 발령받고 도서관 사서로서 첫발을 떴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중증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장애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들의 열정에 다시금 감동했습니다. 그분들과 가까이 지낸 덕분에 장애인들이 제작하는 단편 영화에 조연으로 참여하는 이색적인 경험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JDC이음일자리 4차 사업 수기 공모전’에 도서관사서(DPI 도서관)사업단으로 참여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도서관 사서의 새로운 소망’이라는 제목의 수기를 작성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주MBC에서 주관한 한 토크 콘서트에 제주 도서관 대표 사서로 참여하는

경험을 했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의 식이 꿈틀거렸습니다. ‘책 읽는 유튜브’에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2020년 2월 제주 한라도서관에서 최금진 시인의 ‘디카시’ 강좌를 들었습니다. ‘디카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하고는 코로나19 여파로 남은 일정이 취소되고 말았습니

다.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디카)와 시(詩)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을 찍은 뒤 시적 감흥을 담아 짧게 연출한 사진 영상과 문제를 하나로 텍스트화하는 멀티 언어 예술입니다. 꾸준히 디카시를 습작하던 중 ‘제3회 경남고성 국제한글디카시공모전’에 ‘묵언’이라는 작품으로 응모했는데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잊지 못할 고희 선물이었습니다. 최금진 시인의 조언과 응원에 힘입어 부산으로 돌아와 졸작들을 모아 시집을 펴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만난 친구와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담아 시집 한 권씩을 선물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공부하고 나의 경험을 살려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노력을 인정 받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 처럼요.

부산에서는 지인의 소개로 100여 개 상점이 모여 있는 전통시장 상가 변영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매월 관리비와 운영비를 관리하는 총무업무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였습니다. 보수는 많지 않더라도 정년이 없는 직장을 얻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후 한 대학의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창업 초기 기업을 상담하는 멘토링 제안이 들어와 또 한 번 도전에 나섰습니다.

2021년 초부터 시작한 멘토링 활동은 4개 업체로 이어졌고, 과거 대학 겸임교수 3년 근무 경력과 한국생산성본부 경영진단사 자격을 바탕으로 강의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최근에는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여름에 태어난 손녀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매일 한 편씩 동화를 읽어줬습니다. 이제 ‘디카시 시인’이자 창업 기업의 멘토,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유튜브로 인생3모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신중년은 ‘자유로움’입니다. 이제는 생계 활동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니까요. 바람이 불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고 즐겁게 인생3모작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연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해요. 앞으로도 두려움 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며 또 한 번의 청춘이자 멋진 신중년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수상

윤정훈

## 생애를 다시 설계하자 새 길이 보였다

윤정훈 씨에게 노사발전재단 강원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신민화 컨설턴트는 '구세주' 같은 존재다. 관광업계에서 일하던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퇴직한 뒤 건강 악화로 집을 서울에서 아들이 사는 강원 원주로 옮기면서 화려한 인생3모작의 막을 열었다. 원주 지역의 소방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를 만나보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오로지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하시겠어요?” 2021년 10월 18일 오후 3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주)혁신ENG 면접실. 30분간의 면접을 마치고 의자에서 일어날 무렵, 면접관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 떨어졌구나.’ 하는 마음으로 면접장을 떠나려고 했던 순간, 합격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 강원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의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1월 국내외를 강타한 미증유의 바이러스 코로나19 팬데믹을 제가 근무하던 회사도 비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자 연간 1,500만 명이나 들어오던 외국인 관광객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거의 제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간혹 들어오는 해외 주재원과 그의 가족들, 귀국하는 자국민들은 곧바로 격리 시설로 옮겨질 뿐이었습니다. 텅 빈 인천국제공항은 말 그대로 지구 멸망 영화에서나 보던 그 장면들과 다름없었습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 수십여 명만 서성일 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오로지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저는 한 관광 회사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고 서울 호텔로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차량 운행 기사 100여 명의 채용부터 서비스 품질 교육, 관리까지 도맡았던 부장이었습니다. 채용 담당자로서 채용 당시 면접장에 들어오는 입사 지원자의 눈빛과 행동, 말하는 목소리와 사람 됨됨이를 보고 뽑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깔끔한 복장과 예의 바른 운전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시내 호텔까지 이동하는 약 1시간 30여 분간 안전하게 운전하는 ‘친절 기사’의 매너는 다시 오고 싶은 대한민국의 첫인상과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바탕으로 ‘고객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업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보람된 직장 생활이었으나 하늘길이 막히며 외국인 입국이 단절되자 회사는 차량 운행 기사들을 모두 내보내고, 관리자들만 남기는 특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틀마저도 유급 휴직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1년간량을 간신히 버티다가 결국 2020년 12월 19일 자로 전원 퇴직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실업 급여를 받았으나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절망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절망감과 우울감을 겪으며 2개월 정도 지냈을까. 몸에서 이상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왼쪽 눈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한 안과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대학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소견서를 챙겨 대형 병원으로 갔습니다. 뇌 MRA, 시신경 MRI 유전자 검사, 심장 초음파 운동 부하 혈액 검사, 안구 검사 등 정밀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걱정이 된 아들이 저를 데리고 원주로 내려갔습니다. 원주에 있는 아들 집에서 휴식하게 된 것입니다. 원주천의 맑은 공기를 쉼매일 1시간 30분씩 걷기를 두 달,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지고 쇠약해졌던 몸과 정신이 웬만큼 회복됐습니다. 그동안 저를 못 살게 괴롭히던 우울증 녀석도 사라졌습니다. 2021년 5월 말, 가벼워진 몸을 이끌고 곧바로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았습니다.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한 상담사는 노사발전재단 신민화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신민화 컨설턴트는 저를 신중년 재도약 프로그램 2기 인생3모작 과정과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며 집중적으로 챙겨 주셨습니다. 생전 처음 참여하는 과정의 프로그램과 세밀한 인생 설계 콘텐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 중 하나인 MBTI(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59년간 살아온 제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제게 맞는 업종이 무



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취업에 필요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비롯해 워크넷 등 구인·구직 사이트의 정보 검색 방법을 교육받았습니다. 면접관과 면접자의 역할을 바꿔가며 진행한 모의 면접을 경험하며 '실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국내 최고의 신중년 재취업 프로그램 강사진의 체계적인 교육과 담당 신민화 컨설턴트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인생3모작을 준비했습니다.

1급 소방시설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을 1차 목표로 잡고 향후 소방 점검 전문 업체에 취업해 경력을 쌓은 뒤 정년이 없는 '소방시설관리사'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5일간의 강습 수료 후 2개월 만에 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강원 원주 지역의 구인 사이트에는 소방업체의 구인 공고가 없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상대적으로 구인 공고가 많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업체에 이력서를 꾸준히 올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신민화 컨설턴트는 '투 트랙'으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참여자 출신이 근무 중인 원주 지역의 소방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유난히 햇볕이 따스했던 10월 12일 오후, 원주천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달여 만에 듣는 신민화 컨설턴트의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신민화 컨설턴트는 원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주)혁신ENG 소방 회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망설임 없이 곧장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면접 역시 무리 없이 마쳤습니다. 결과는 최종 합격. 다음 날 곧바로 출근한 저의 직무는 원주 시내 건물의 화재를 예방·진압하는 소방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십여 개 업체를 방문 점검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저에게 강원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선물해 주고, 인생3모작에 자신감을 심어준 '구세주' 같은 존재입니다. 경력이 있어도 중년의 구직자가 그간 사회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기 쉽지 않은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이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분들에게 노사 발전재단의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권유합니다.

**“2번의 도전 끝에 소방시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고시에 합격한 것처럼 기뻐어요.  
제가 생각하는 신중년은 노련합니다.”**



<p>01</p> <p>태권도 선수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p>	<p>02</p> <p>3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을 경호했을 때</p>
<p>03</p> <p>1990년대 삼성그룹 '영업의 왕' 연봉 1억 5천만 원 받았을 때</p>	<p>04</p> <p>자녀들이 대기업에 입사, 성실하게 각자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볼 때</p>



우수상  
안서조

## 경찰관에서 크리에이터로 평생 현역을 꿈꾸다

33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안서조 씨는 지난 2019년 10월,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음일자리 '소셜미디어 PD' 교육을 거쳐 소셜미디어 PD이자 동영상 강의 크리에이터,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언제나 현역'이라는 그는 앞으로도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위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신중년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지난 2013년, 33년간 몸담았던 경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언제나 비상소집에 응소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늘 긴장 상태가 몸에 배어 있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경찰복을 벗고도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몰라 여행도 다녀오고, 취미생활도 해봤지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며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친구를 만나 낫술을 마시고 밤까지 밖으로 쏘다니면서 방황했습니다. “아! 옛날이여. 이 사회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구나.” 자책하며 하루하루 버티던 2019년 10월, 탈출구 없던 제 인생에 마치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00세 시대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제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이음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름 매니저 등 총 4개 분야 중 일생에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었던 ‘소셜미디어 PD’ 분야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0월 14일 지원서 접수 후 보름 만인 10월 30일 마침내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 나이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까지 보면서 해야 하나?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떡하나?” 기대와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요즘 무신거 햄수강?”, “소셜미디어 피디 햄수다.”**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도움으로 유튜브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소셜미디어 PD 직무 교육 과정 중 직업 적성 검사도 받고 생애 설계 교육 프로그램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퇴직 후 미래를 그려보는 기회였습니다. MBTI 검사를 통해 나에게 맞는 직업군을 알아보고, 생애 경력 설계 교육을 받으며 체계적인 노후 계획을 계획해 봤습니다. 가수 나훈아의 곡 ‘테스형’ 노랫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과거 인생 속의 저와 현재 제 모습을 비교해 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소셜미디어 PD’ 업무는 제주도 내 전통시장과 영세 업체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 SNS 채널에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비싼 제작비 때문에 홍보 영상 제작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업체들의 영상을 무료로 제작해 주었습니다. 이를 SNS 채널에 올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공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제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한다는 자체가 가슴 벅찼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니 저절로 의욕이 생기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와 같은 신중년이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게 의미 있었습니다. 이음일자리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조회 수가 변변치 않았습다.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다시 SOS를 쳤습니다. 센터에서는 제주MBC와 협조하여 우리가 만든 영상을 송출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주MBC 담당 PD님이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하고 공영 방송에 영상 송출 시 개인의 초상권이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의 사항에 대해 교육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만드는 영상은 전문 장비 없이 오로지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촬영이나 편집할 때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방송 송출 영상으로 제주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인 ‘보성시장’을 아이템으로 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상인회장님을 뵙고 영상 촬영 협조를 구하던 중에 배우 김보성 씨가 이 시장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기획 회의를 통해 김보성 씨 캐릭터를 패러디하기로 하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방송국의 수정 보완을 거쳐 우리가 만든 영상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일을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도움으로 해냈습니다. 인생에 있어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2021년 7월 소셜미디어 PD 일자리 계약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마침 센터에서 최근 1인 미디어 시대에 맞게 중장년 일자리를 만들어 일회성이 아닌 창업을 이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센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영상 제작과 편집 기술을 활용해 창업이나 전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감사하게도 센터에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을 위한 예비 창업 지원 교육을 개설해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교육을 마치고 내년에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올여름부터는 제주시 탐라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에 멘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제 SNS 프로필 문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중년이란 ‘새로운 희망’입니다. 소셜미디어 PD이자 크리에이터, 유튜브 ‘제주도 책읽는 영감 안TV’ 운영자로서 단순히 ‘남은 인생을 보내는 노인’이 아니라 ‘언제나 현역’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인생3모작’의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주신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있어 정말 든든합니다. 강수영 소장님, 송왕준 전문위원님, 양훈석 컨설턴트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주 지역 중장년들이 희망을 찾는 등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33년 경찰관 근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에 충실했다는 자긍심



우수상

여희정

## 도전하는 맛이 즐거운 ‘오뎅이 여사’

여희정 씨는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만나 부산 한 회사의 조리사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녀의 별명은 ‘오뎅이 여사’. 인생길을 걸어가다 실패를 맛봐도 다시 일어서는 오뎅이 근성은 지금의 그녀를 만든 원동력이었다. ‘오뎅이 여사의 재취업 도전기’가 지금 시작된다.



나의 새로운 인생3모작을  
위해 배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업무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의 별명은 ‘오뎅이 여사’입니다. 약 20년 동안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며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전문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도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로 요리 학원을 등록, 조리사 자격증 취득에도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합격이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증을 손에 넣었고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총 4개의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실시한 재도약 프로그램에 참여해 구직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센터의 담당 컨설턴트와 지속적인 구직 상담을 통해 한 병원의 조리사로 재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네이버 블로그 ‘오뚜기여사의 메모장’에 매일 일기를 쓰며 디지털 세상에도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이나 신문, 방송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처럼 기대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100세 시대가 되면서 지금의 60대는 앞으로 40대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가족들을 위해 음식점을 운영해 보기도 하고 식당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남은 인생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해부터 종종 동네에 있는 부산시립 연산도서관에 들러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책을 읽을수록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답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자 다짐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검정고시와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지난 2월 5일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6월 24일에는 양식 조리사 자격증도 함께 땀했습니다.

검정고시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두 차례 연기 끝에 5월 시험을 쳤고 다음 달 마침내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총점 492점에 평균 70.28점. 상상도 해보지 못한 점수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증을 받는 순간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 지금도 늦지 않았구나. 무엇이랴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재도약 프로그램 모집 홍보를 보고 바로 상담받고자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사님과의 상담 후 감사하게도 참여자로 합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중학생 때 이후로 처음 듣는 수업이었습니다. 설레면서도 떨리고, 긴장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센터의 전문 강사님들은 이력서 작성과 면접 방법 등 그동안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심리 검사를 통해서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교육받은 동기들로부터 열정과 에





너지를 전달받아 뜻깊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한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센터의 교육을 마친 뒤 재취업 방향을 20여 년 넘게 해온 요리 관련 직종으로 잡았습니다. 중식 조리사 자격증과 일식 조리사 자격증 획득에도 도전해 9월 2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식과 양식에 이어 중식과 일식까지 총 4종의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 자격증을 무기로 '실버 세대'와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었고 이에 대해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컨설턴트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얼마 뒤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부산의 한 병원 조리사 채용 공고에 입사 지원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바로 출근하세요!" 센터에서 교육받은 이력서 작성과 면접 팁을 바탕으로 채용에 지원했는데 당당히 합격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재취업에 성공한 순간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새롭게 입사한 회사는 예전에 일했던 곳들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이었고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터였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나의 새로운 인생3모작을 위해 배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업무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취업할 수 있게끔 곁에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던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강지연 컨설턴트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뚝이 여사'의 다음 도전은 2022년 새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지원해 대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멋진 노년을 위해 새로운 것을 꾸준히 배우며 인생 설계를 하나갈 것입니다.



01  
생애 처음 도전한 검정고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02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03  
부산경총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만나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장려상

이찬우

## 1453번 도전 끝에 손에 쥔 두 번째 명함

1452. 이찬우 씨가 24년간의 은행원 생활에서 명예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 숫자다. 1453번 도전 만인 2021년 11월, 평생 은행원으로 살았던 그는 한국대학교육평가협회에서 인생3모작을 열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재취업에 성공한 그의 합격 수기를 들어보자.

새 학교, 새 학년,  
새 출발을 뜻하는 3월.  
저에게 신중년은  
'언제나 3월'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26년 무렵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203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대 수명이 긴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0세 시대에 어쩌면 당연한 수치일지 모르겠지만 신중년의 삶은 그래서 더욱 어렵고 고단합니다.



임금 피크를 5년여 남기고 KB국민은행에서 명예로운 퇴직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꿈꿔보고 싶다는 도전 의식이 컸습니다. 흔히 금융인과 직업 군인은 퇴직 이후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특히 금융업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자본시장통합법, 외국환관리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외에도 각종 규제와 보호를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명예퇴직을 시도했지만, 상무님을 비롯한 주변의 만류로 무산됐었습니다. 2018년 1월 퇴직할 땐 흥분한 마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50대가 다가오면서 누구나 퇴직을 고려하지만, 그해 노사 협의를 통한 퇴직 조건이 좋아 24년간 몸담은 회사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신중년의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퇴직 후 2년간은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과 여행을 다녀오고 네 자녀의 학교와 학원 픽업, 장보기 등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일부 잘못된 투자로 퇴직금마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창업은 애당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터라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동안의 경력은 2018년 1월, KB국민은행의 옷을 벗을 때부터 내려놨습니다. 이 경력으로 타 회사에 임원으로 갈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력서를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며 그제야 비로소 제가 24년간의 은행 근무 경력 빼고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직 당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5일여간 연수 출장도 다녀오고 독서·통신 연수 등을 수료하며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해왔다고 자부했던 저였지만, 이마저도 이력서에 한 줄 넣을 수 없었습니다. ‘경력’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을 무렵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운명처럼 만나게 됐습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재취업을 막막해하는 저에게 ‘상상우리’라는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상우리는 신중년 커리어 프로그램인 ‘굿잡 5060’이라는 과정을 통해 신중년의 커리어와 역량을 키워주는 동시에 취업도 알선해 주는 소셜 기업이었습니다. 5주간 진행된 굿잡 5060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격증 취득에 도전했습니다. 저의 커리어와 연관성이 있고 재취업 시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들을 나열해 나갔습니다.

기업들의 채용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수 우대 사항 및 자격 사항들을 분석해 나가며 나만의 ‘맞춤형 자격증 취득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 담당자의 안내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알게 되면서 저의 자격증 취득에 ‘날개’를 달 수 있었습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직장 경력뿐만 아니라 채용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등 요건을 잘 살펴보고 준비한다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빈칸이었던 이력서의 자격증 취득란을 1년 만에 꽉 채울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부터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ITQ 한글·파워포인트·엑셀 등 내일배움카드를 200% 활용하여 회계나 세무, 문서 작성 등 그동안의 업무 연관성에 맞는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놀랍게도 자격증을 취득한 뒤로부터 기업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의 '전략적 접근'이 주효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지난 1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 평가기획팀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대학 기관 평가 인증을 비롯해 예산 운영 등 행정 업무, 미래형 대학생 핵심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계약직에 최종 합격, 2021년 11월 16일부로 임용되어 출근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 통지를 받고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잘못 발송된 게 아닌지 싶어 어안이 병병했고 전화를 걸어 다시 확인하기도 했어요.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1452’라는 숫자를 아시나요? 제가 대교협에 합격하기 전까지 이력서를 제출했던 기업의 숫자입니다. 1년간 1500곳 가까운 회사에 채용 지원을 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우리 중장년층이 취업 시장에서 효용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출발점이자 동기부여를 해준 곳이라 ‘고마운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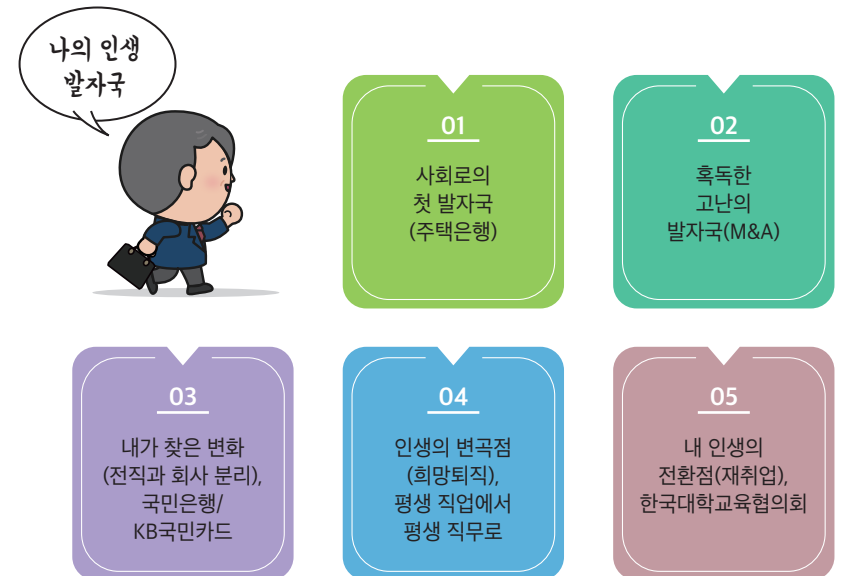
대교협 첫 출근을 앞둔 제게 네 아이가 편지 한 통을 써줬습니다. “아빠의 위트와 진정성으로 대교협 흔들어 버



려!” 다가오는 2022년 새해 제 목표입니다. 열심히 회사에 적응해서 내년 이맘때엔 “정말 채용 잘했구나. 내년에 중장년층을 또 뽑아보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중장년 재취업 사례의 모범이 되어 새해엔 ‘제2의 찬우, 제3의 찬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는 말처럼 다른 신중년 여러분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의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노사발전재단의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유합니다.

**“신중년 여러분, 도전을 두려워 마세요!”**





장려상

김광수

## 서울에서 제주로 재주 살려 디지털 강사로

김광수 씨는 국내 1세대 전사적자원관리(ERP) 전문가로 30여 년간 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담당했다. 은퇴 후 어머니의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노사발전재단 제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만나면서 새로운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디지털 교육 강사'라는 가슴 뛰는 도전에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그를 만났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길 좋아하던  
저는 강사의 꿈을  
이뤘습니다.



제주 도민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대학에서 기계과를 졸업한 저는 1988년 첫 직장에 입사해 자재 관리, 구매 관리,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거쳐 전산 시스템의 기획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1994년 무렵에는 전사적자원관리(ERP)에 눈을 뜨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자계산학과(현 컴퓨터학과) 3학년에 편입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1세대 IT, 소프트웨어 업계 동기, 선배들과 교류의 시간을 통해 그야말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충북 청주에 있는 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광폭 비닐 제조업체로 이직해 IMF 전까지 다녔습니다. 밀레니엄 시대 흐름에 편승해 서울 용산의 한 정보통신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SMT 장비업체에 몸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주로 기업에 ERP 시스템 구축, 컨설팅 업무를 소화하고 2011년 말 현장에서 은퇴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는 부모님이 계신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이듬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올해 3월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며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30여 년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내려간 제주에서 부모님의 마지막 삶을 돌보고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노부모를 돌보는 와중에도 틈틈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건물을 보고 운명처럼 이끌려 그곳을 찾았습니다. 십수 년 만에 다시 이력서를 써봤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컨설턴트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를 울립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좋은 경력을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셨어요?” 순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네.’ 싶어 울컥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공동 추진하는 이음일자리 사업인 ‘일자리지원단’을 소개해 줬습니다. 지원단에 합격해 저와 비슷한 또래 중장년들의 취업 알선과 상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제주 지역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이 일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일이라 느꼈습니다. 이를 알아본 센터 강수영 소장은 “선생님이 과거 근무했던 업무 이력과 사회 경험을 십분 활용해 새로운 강의 분야에 도전하시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디지털 교육 강사’라는 가슴 뛰는 도전이었습니다.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신중년 적합 직종의 이해-PE(Practice Enterprise)’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고, 이 교육을 수강한 뒤 저는 ‘디지털 교육 강사’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PE 기반 세대 상생 일자리 사업인 ‘PE퍼실리테이터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거쳐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ERP 직무 실습 과정’을 개설, 회당 3시간씩 총 18회의 강의 실습을 했습니다. ‘김광수 디지털 교육 강사’의 능력과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인 ERP정보관리사의 4개 모듈(인사, 생산, 물류, 회계)에 관한 2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곧이어





2021년 직무 특화 전직 지원 서비스인 ‘디지털 교육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총 20시간의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드디어 5월 6일 KTcs에서 실시하는 제주 지역 ‘디지털배움터 강사 및 서포터즈 모집’에 지원해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여 서포터즈로 지원했으나 저의 이력을 눈여겨본 면접관이 ‘디지털 배움터 강사’로 일해 볼 것을 권유하면서 운 좋게도 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 일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면 기쁨이 배가됩니다.”

지난 5월 18일 서귀포에 있는 ‘상예정보화마을’ 교육장에서 마을 주민들과 디지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매주 월·수·금요일 3회 컴퓨터 프로그램 기초 강의와 사진 편집 및 동영상 편집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연계 활용 방법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PE 실습 과정이 계기가 되어 지난 11월부터 12월 3일까지 국비 과정의 ‘2021년 경력 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인 ERP 기반 세무, 회계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강의를 맡아 진행

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배움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기초 강의를 하고, 매주 화요일엔 한림청소년문화회관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초·중등생에게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강의를 준비하느라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이지만 앞으로 남은 강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사인 제가 더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수강생들이 엑셀 프로그램을 이해했다고 고개를 끄덕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경험합니다. 이 일이 저의 ‘인생3모작’을 행복하게 보낼 ‘창직’ 활동인 셈입니다.

### “저에게 신중년이란

“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해준 단초”입니다.”



장려상  
이미해

## 경단녀에서 상담사로 변신 또 다른 경단녀의 징검다리 되다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직업상담사로 지역 내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들의 취업 도우미로 활동 중인 이미해 씨. 대학 졸업 후 짧은 사무직 경력과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며 30여 년의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55세, 신중년의 봄날을 맞이한 그녀의 인생으로 들어가보자.



나의 새로운 인생3모작을  
위해 배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업무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과연 내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반백 살이 넘어갈 무렵,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길다는 생각에 무작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0여 년이 넘도록 학생들의 영어 과외 선생님이로 일해 왔던 저는 언젠가부터 남들처럼 직장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문득 대학 졸업 후 잠깐 다녔던 회사가 그리웠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 경력 단절 기간이 30년이 넘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1980년대 무역 회사에 다니던 시절에는 텔렉스(telex)로 해외 회사와 의사소통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 마주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신중년 신규 인력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무작정 지원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성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상담, 직업 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 등을 담당하는 센터입니다.



제가 관련 업무 경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지원본부의 본부장님이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저의 진심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전 업무에 투입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어떤 일을 할지,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눈앞에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내면서 배워나갔을 텐데 백지 한 장을 던져주시니 좌불안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본부 조직도를 살펴보고 취업지원팀과 인력양성팀 중 인력양성팀에서 일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구직보다는 구인처를 발굴해 내는 게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충북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려고 하니 우리 본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부터 숙지해야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직자 발굴부터 심리 상담, 구인·구직, 집단 상담, 동행 면접, 경력 개발 등 본부에서 하는 주요 업무를 이해하고 나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새일여성 인턴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입사 준비 교육, 사후 관리, 여성 친화 일촌 협약 등 센터의 세부 사업들마저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일선 구인처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고 단순 구인 업무 외에도 기업 문화 특강이 필요하거나, 여성 관리자의 경우 리더십 특강 등 현장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구인처를 직접 방문하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적지 않아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구인처의 수요에 맞게 구직자를 발굴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업무였습니다.

**“제가 구인처에 추천한 면접자가 채용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뒤 감사 인사를 전해 왔어요. 그 짜릿함을 아직 잊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청주 지역에 기반한 제조업 회사들은 대부분 젊은 구직자를 원했습니다. 특히 생산직이 많다 보니 채용에 있어 나이가 걸림돌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관리자가 35세라고 하면, 그보다 많은 나이의 사람은 뽑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바늘구멍보다 들어가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인사, 총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중고교생이 되면 나이가 거의 40대가 넘어 지원할 곳이 많이 없습니다. 해당 관리자가 그들의 나이보다 젊은 게 현실이니까요.

이처럼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의 기본 취지는 잠자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동기 부여를 극대화하면서 재취업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제 또래 여성들의 재취업에 집중하게 된 것도 이때문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구직 회원님 중 한 분의 경우 47세 여성으로 경력 단절 기간은 10년 정도인데,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일할 곳을 찾았습니다. 결혼 전에 했던 일이 경리직이라 사무직만 고집하셨습니다. 관련 직종의 회사를 4곳이나 추천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탈락의 고배를 마신 뒤 사무직이 아닌 생산직을 권유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체력적으로도 자신이 없다고 혀를 내둘렀으나 근무 환경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득한 끝에 면접을 보셨습니다. 막상 면접을 보고 나니 생산직에 대한 편견과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후 모 회사의 생산직 일자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현재는 일터문화개선팀의 일원으로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의 니즈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 워크넷 등록 시 본인이 원하는 직종에 맞게 이력서 수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인처를 발굴하여 우수한 인력을 추천·소개하고 무엇보다도 지역 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응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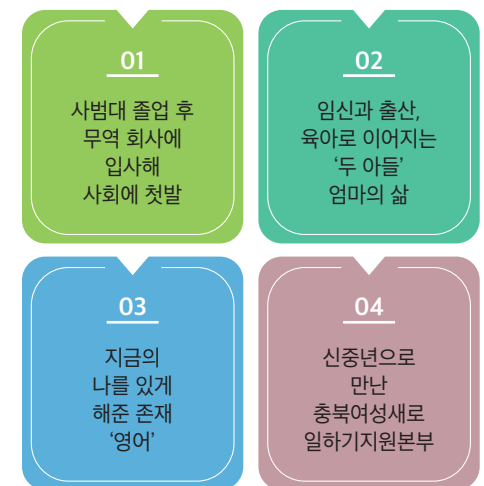
비록 전문 직업상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구직자를 만나 이야기 나누며 그들의 취업을 돕는 일은 뜻깊었습니다. 단순히 취업 정보를 안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동반자의 역할이기에 하루하루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에게 신중년은 ‘인생3모작’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청장년기의 출발이라고 할까요.**

**앞으로도 오로지 제가 가진 능력으로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요.**

**아직 일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나이는 충분하니까요.”**



장려상

임영미

## 건강과 웃음 다시 찾고 은퇴자 인생2모작의 전도사로

임영미 씨는 47세에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서 명예퇴직했다. 24년 공직 생활 동안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우수 공무원으로도 발탁됐던 그녀. 퇴직 후 자신처럼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후 전직 지원 컨설턴트로 인생3모작을 시작했다.





지난 2001년, 처음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당시 직장이 있던 지방에서 서울의 한 대학 병원을 오가며 혈액 투석 등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여기에 공황 장애와 실어증마저 더해져 매일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호흡 곤란으로 야간 응급실을 찾기 일쑤였고, 아침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쁘게 화장한 얼굴로 곱게 차려입고 일터로 출근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부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제 나이 31세 때 일입니다.

38세 때는 지방에서 병원과 가까운 서울로 거처를 옮기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며 두 아이의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했습니다. 당시 승진을 앞둔 상황 속에 몇 년간 새로운 업무를 익혀야 했고 국정 과제 등 주요 핵심 사업을 맡다 보니 매일 반복되는 야근으로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47세에 심한 번아웃을 견디지 못하고 질병 휴직계를 냈으므로써 32세 1월 신장 이식 이후 15년간 쉴 새 없이 달려온 직업 활동에 잠시 쉽표를 찍었습니다. 100세 인생에서 다시 건강을 잃게 되면 스스로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일상에도 지장이 생기겠다는 걱정에 결국 명예퇴직을 결정하며 ‘인생3모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1일 자로 공직에서 퇴직하고 아무 소속이 없는 ‘그냥 임영미’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남들보다 10년은 일찍 은퇴하였는데, 전문가의 상담도 주변의 도움도 사실상 받지 못한 채 일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프랜차이즈 점포를 하나 열었는데, 딱 1년 만에 폐업하고 공직자 시절 담당했던 직



업 진로와 관련된 취업 지원 분야와 관련된 일을 찾았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일등이었는데 직접 만나보니 더욱더 탐나는 인재네요.” 점포 폐업 후 약 3개월 동안 교육을 거쳐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지원관으로 5개월 계약직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건강에 중심 가치를 두고 일과 건강, 여가와 가족 그리고 사회적 관계 등 일터와 가정에서 ‘조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4년 행정직 공무원 근무 경험을 살려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과서 형태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을 접한 청년들은 개인 컨설팅 문의를 해 왔고, 이듬해 공직박람회에서 특별 강연자로 강연하는 행운도 얻게 되었습니다. 준비 없는 창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창업자 대상 교육도 수강하며 창업에 대해서도 다시 학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직 지원, 경력 설계, 생애 설계 전문가 과정에 필요한 학습을 병행하며 작가와 강사, 컨설턴트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주식회사 스카우트의 전직지원사업 부문에서 퇴직 임원 전담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는 30년 전부터 고용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로 고용노동부 위탁 사업, 군 전역자 취업 지원 등을 비롯해 현재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국민 취업 지원 사업, 전직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저는 퇴직 예정 임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치 있는 인생 2막을 열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취업 지원 분야에서 공직자로 근무할 때 노사발전재단에서 신중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셈이죠.”**

올해 정년퇴직한 분들은 주로 1961년생이예요. 이분들의 경력을 보면 정말 화려한데요. 과거 몇십 년 전에 정년퇴직하신 분들하고는 다르게 고학력에 소위 스펙도 좋고 무엇보다도 많은 경험이 장점입니다.

현장에서 퇴직 임원들을 만나다 보니 이분들이 사회에서 잊히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 일본보다 고령화 시기가 2배 빠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OECD 국가 중 출산율은 최저입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율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해답은 신중년의 인생3모작을 통한 활기찬 재도약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30~40년이 넘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만난 고객 대부분은 이 시기, 자녀에 대한 재무 투자로 '자녀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의 퇴직 5년 전부터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퇴직, 어머니의 퇴직에 대해 함께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직 지원 컨설턴트로 날마다 신중년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고객들 대부분은 저보다 나이가 6~7세 많은 언니, 오빠들이예요. 저에게 신중년은 오랜 시간 함께하고픈 언니, 오빠들입니다. 저 영미가 언니, 오빠들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가족들과 퇴직의 짐을 나눠 지고,  
공유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가장으로서 짊어졌던 어깨의 짐을 가족과 함께 나눴으면 해요.”**

나의 인생 발자국

- 01  
컨설팅한 퇴직 임원 한 분이 총괄 사장에 올랐을 때
- 02  
신중년들에게 새로운 생각의 문을 열어드렸을 때
- 03  
다양한 변화와 전환기를 거쳐 스카우트에 입사했을 때
- 04  
큰 수술 후 의료진의 이야기 “아무 걱정 말고 저희를 믿어주세요”
- 05  
20년 동안 다닌 병원 직원의 말. “지금부터 행복의 나라로 출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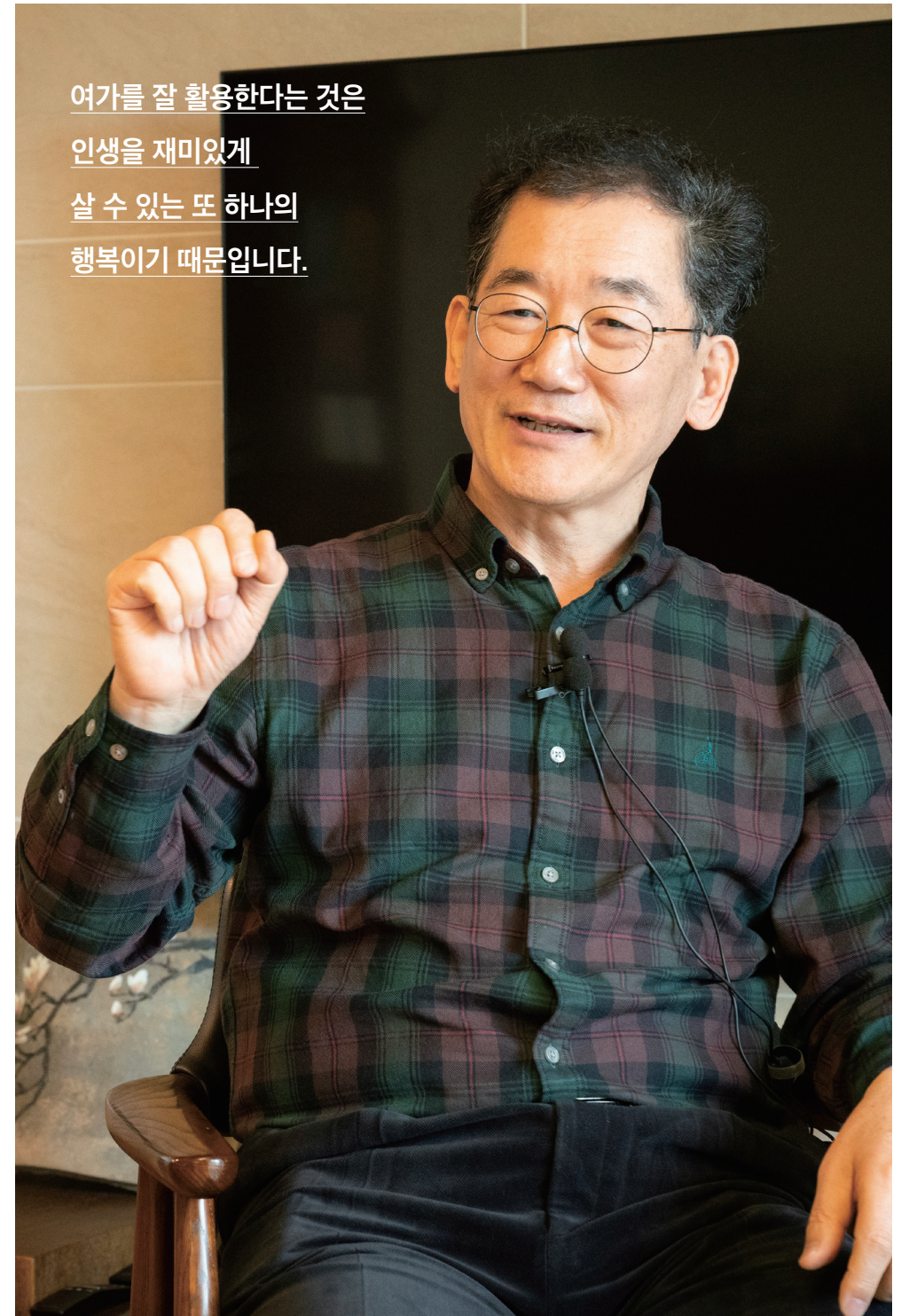


장려상

조성복

## 재미와 의미로 채우는 가슴 뛰는 삶

조성복 씨는 신중년을 '가슴 뛰는 삶'이라 표현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찾는 과정에서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끼고,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그동안 서보지 않았던 무대에 올라가라는 조성복 씨를 소개한다.



여가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가슴 뛰는 삶’. 며칠 뒤면 만 64세가 되는 제 인생을 함축한 글귀입니다. 은행에서 35년간 가슴 뛰는 삶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은행 근무 경험과 관련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초중고부터 노인대학, 군부대,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우리 경제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용돈 관리를 비롯한 합리적인 소비에 관한 강의를, 대학생들에게는 최근 관심이 높은 창업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는 출소 후 사회 적응을 위한 금융 강의를, 또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서민 금융과 금융 복지 혜택 등에 대한 ‘알림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3년 전부터 퇴직 후 일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 강사 인증 프로그램에 신청한 뒤 이듬해 강사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서민의 금융 생활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해 포용 금융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서민 금융 종합 상담 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

다. 운이 좋게도 해당 프로그램 연수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강의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경남 합천군 한 마을의 이장단을 대상으로 한 금융 강의였습니다. 첫 강의라 긴장을 많이 해 어떻게 강의를 마쳤는지 몰랐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운 덕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차를 끌고 포항교도소로 이동하는 그 2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전 9시, 포항교도소 강의 시간에 맞춰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6시 출



발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교도소 강의에 앞서서는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수감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40대를 지나 50대에 접어들 무렵, 가족들과 부산 시내를 지나다 한 악기 가게 앞에서 아코디언을 봤습니다. 곧바로 가게에 들어가 “아코디언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배우니까?” 물어보고, 그다음 날부터 아코디언을 배웠습니다. 유년 시절 시골 마을에 추수가 다 끝나고 농한기가 되면 소위 ‘딴따라’라고 하는 ‘유랑단’이 와서 천막을 치고, 약도 팔면서 아코디언 연주하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음악에 대한 잔상과 아코디언의 추억이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는데, 그 작은 꿈을 40여 년 지나서 이루게 된 겁니다.

집 근처에 있는 온천천변의 한 벤치 앞에서 ‘버스킹’도 하고, 피아니스트 지인과 함께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연주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후에는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아코디언 연주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아코디언 동호인 모임에 참여하며 현재는 연주회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아코디언 연주를 통한 예술 활동은 경제력을 해결할 수 있는 ‘창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여가 생활’과 ‘대인관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 여가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인생을 재



미있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2년 전인 2015년,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국가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통역안내사 클럽에서 40대 전후 안내사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짐은 물론, 퇴직 이후에는 중국인 여행객들을 안내하며 ‘민간 외교관’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 후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두 4곳이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2곳에서 활동 중입니다. 책 속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나누고 토론을 통한 사고의 확장은 금융 강의에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시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야 하는 인생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퇴직을 1년여 앞두고 있을 때 우연히 코칭(coaching)에 대해 접하고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코칭은 청소년의 진로 코칭에서부터 라이프 코칭, 기업의 비즈니스 코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코칭을 접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70세까지는 금융 교육 강사와 통역안내사로, 80세까지는 ‘라이프 코치’로서의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해금을 취미로 하는 아내와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제가 한 무대에서 서서 ‘듀엣 무대’를 꾸미는 꿈을 꾸봅니다. 기회가 된다면 KBS ‘아침마당’에도 출연해 멋진 무대를 꾸며보고 싶습니다. 인생이 재미있다는 것은 예측 불허라는 데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신중년은 ‘가슴 뛰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도 두근두근 가슴이 뛰는 삶을 계획하세요.  
 무대에 여러분을 세워보시고, 그동안 서보지 않았던  
 무대에도 올라가보십시오!”**

01  
 35년간의  
 가슴 뛰는  
 은행 생활을  
 마쳤을 때

02  
 금융 전문 강사로  
 학교, 교도소,  
 노인대학 등 다양한  
 강단에 나설 때

03  
 중국어, 아코디언  
 연주, 독서클럽 등  
 나만의 여가 활동을  
 즐길 때





장려상

김진욱

## 모바일 노하우 18년 IT 기업에서 다시 꽃피우다

20여 년간 모바일 회사에서 신사업 개발을 담당했던 김진욱 씨는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직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다. 2021년 3월 해당 프로그램 수료 후 IT 기업 시니어 인턴을 거쳐 10월, 마침내 전자식권 브랜드의 사업 관리이사로 '인생3모작'을 열었다.



저는 지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모바일 기업에서 신사업 개발 및 출시·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약 30~50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서비스 사업화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뒤처지면서 2017년 모바일 업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생 2모작을 위해 텐트 제조 및 판매 자영업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텐트 제조 및 판매를 위해 배운 웹 디자인 지식을 바탕으로 웹 디자인 프리랜서로도 일하면서 2년에 걸쳐 30여 개의 웹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안타깝게 이마저도 부가가치가 낮고 워낙 경쟁이 심한 분야여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과거 전문성을 살린 이직 기회를 찾다가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접하게 되었고, 올해 초 주저 없이 재도약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전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안 담당자님들이 보여준 헌신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교육에 참여한 동료들과 동아리 활동을 소화하며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전직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저와 같은 처지의 구직자들로부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의 소개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진행하는 전문 인력 구인-구직자 매칭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원하던 IT 업체와 단기 계약이 성사되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제 첫발을 댄 청년 기업으로 창업 후 사업 아이템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다른 인턴들과 함께 주로 사업 기획을 담당했습니다.

5개월 동안 진행된 시니어 인턴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고용 연장에는 실패했지만, 청년 사업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업계에서 쌓은 경험을 나누고 공감대를 이룬 점은 '절반의 성공'이라 자평합니다. 이 과정을

마칠 무렵에 주변 지인을 통해 다른 유망한 IT 기업을 소개받았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현업 은퇴 후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는 점과 해당 업계에 필요한 업무 지식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10월부터 새 직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창업 5년 차의 모바일 식권(앱) 서비스 회사로 성장 폭이 크고 현재는 B2B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향후 B2G, B2C로 확대 잠재력이 큰 유망 IT 기업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전직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새로운 IT 기업에 재취업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코딩 교육 프로그램인 '파이썬(python)'을 배우며 '주경야독'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 동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업을 준비할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비슷한 처지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전형에 필요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은 물론이고 최신 업계 소식 등 재단 측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당시엔 잘 몰라도 되돌아보면 큰 도움이 되므로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저 역시 근 20년간 몸담았던 모바일 업계를 퇴직했을 때 막막한 심정 그 자체였습니다. 제2의 인생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대응에 늦었다는 점이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노사발전재단의 전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동기들과 '몸부림'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4월부터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남부캠퍼스 스마트시티 시니어 인턴 고용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한 IT 기업의 시니어 인턴을 거쳐 10월 현재 스마트 식권 IT 기업의 관리이사로서 재직 중임



<전직 스쿨 프로그램>

테마(A~G)	모듈(총 31개)	시간	테마(A~G)	모듈(총 31개)	시간
A. 변화 관리	A1	구직 동기 부여	D. 구직 기술	D4	면접 이미지 메이킹
	A2	회복 탄력성		D5	구직 정보 탐색
	A3	관계·커뮤니케이션		D6	네트워킹 활용
	A4	시간 관리		D7	취업 사례 분석
B. 자기 탐색	B1	MBTI 진단 검사	E. 직업 세계	E1	고용 동향
	B2	STRONG 진단 검사		E2	다양한 일자리
	B3	생애 경력 설계 자가 진단		E3	창업
	B4	역량 분석		E4	사회적기업·협동조합
	B5	중장년의 특성		E5	귀농·귀촌
	B6	직업 가치관		E6	창직
C. 목표 설정	C1	경력 목표 설정	F. 플러스	F1	고용 복지 서비스
	C2	버킷리스트 활용		F2	재무 관리
	C3	직업 카드 활용		F3	스트레스 관리
D. 구직 기술	D1	구직 전략		F4	건강 관리
	D2	이력서 작성법, 실습	G. 직업 체험	관심 분야 현장 학습 예 : 목수, 드론 조종사, 조경 관리사, 도시농부 등	
	D3	면접 전략 실습		5H	

니다. 노사발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처음 접한 뒤 반년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셈입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운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청년 시절 사회 참여로 인해 남들보다 뒤늦게 취업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IT 업계 특성상 하루가 다르게 기술과 트렌드가 변화하고 발전하다 보니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배움의 중요성 역시 필수입니다.

전직 스쿨 프로그램은 기업의 퇴직 예정자에 대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퇴직 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퇴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확보해 제2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은 또래가 아닌 청년 세대들과 일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상과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애플 노트(notion)를 활용하고, 미팅 시에는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등 최근 업무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체득한 경험을 전수해 주는 일 역시 보람됩니다.

저에게 신중년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인생3모작’을 준비하고 있는 선후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사발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전직스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성과가 없을 수 있더라도 훗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장려상

윤연옥

## 실패의 아픔 딛고 어르신 돌봄으로 인생 역전

윤연옥 씨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김치 사업의 실패를 맞본 뒤 생업 전선으로 뛰어들어 주경야독하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사업 실패 14년 만인 2019년, 마침내 경기도 파주에 안심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고 '인생 역전기'를 완성했다.





2005년 어린 두 딸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실패란 없다.”, “성공만 있다.”라는 마음으로 김치 판매 대리점을 했는데 실패를 맛봤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빗쟁이들이 소리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큰딸은 방황하고 남편은 술만 마시고. 결국엔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어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두 딸을 시골 부모님께 맡기고 파출부 일부러 식당 허드렛일까지 닦치는 대로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감정 조절이 안 되어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제 자신은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정말 죽고 싶어질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힘든 일상으로 실의에 빠져 목표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평생교육원을 다니며 사회복지사 공부를 한다는 말을 듣고, 막연히 나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공부를 시작하자.” 그날 곧바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요양보호사 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틈틈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사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야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낮에는 새롭게 간호조무사 학원을 끊었습니다.

**“당시엔 요양보호사 일과 간호조무사 공부가 하나의  
돌파구이자 피신처였어요.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그 방법밖엔 없었거든요. 앞으로 무엇이 되기보다  
이 상황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보자!”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주독야경’에 매진했습니다. 확실하게 목표를 설정하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마침내 2013년 간호조무사 자

격증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간호조무사로 취업해 아픈 환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2017년에는 서영대학교 3학년에 편입, 사회복지사 1급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공부하는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처음 파주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파주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허현주 책임컨설턴트님이 저에게 생애 설계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을 권유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격려하며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지나온 삶과 일을 회상하며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그려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라는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초면의 컨설턴트님이 해주신 위로의 한 마디가 저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에게 대단하다는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3일간의 교육 기간에 강사님은 교육은 물론이고 교육생들의 친목에도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토론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는 나이와 성별, 학력과 직업을 떠나 비슷한 또래의 동기들과 사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100세 시대에는 여가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도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진행한 ‘삶의 6대 영역 모형’ 중 여가 부분이 가장 작게 나타났는데, 젊은 시절 삶의 힘겨움이 한눈에 스치는 것 같아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후 딸과 영화를 보고, 친구와 강원도 여행을 가고, 아프리카 악기 ‘젬베’와 여러 공예를 배우는 등 일과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드디어 경기도 파주시에 안심재가복지센터를 창업했습니다. 설립 3년 차를 맞이한 안심재가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센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속되어 공단을 대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는 어르신택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지원, 정서 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 직원 3명, 일선 요양보호사 30명 등 총 36명의 식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주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안심재가복지센터의 구인 공고를 적극적으로 워크넷에 올려주셨어요. 덕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그만두더라도 그 빈자리를 공백 없이 메울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요양보호센터에서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챙기는 게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전에 따라 다르고 어르신들에게 잘 맞게 챙겨드리는 것이 우리 센터만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만약 처음 만나본 어르신이 변을 보셨으면 바로 변을 치워드리는 게 돌봄입니다. 저 역시 실전에서 어르신이 위중하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면 그에 맞춘 대처를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유난스럽다는 말도 종종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르신들이나 보호자 분들이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니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 은퇴 후 제2의 일자리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신중년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등불은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견을 못 해서 그렇지, 탈출구도 있고 비상구도 있습니다. 주위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같은 센터나, 관련 교육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신중년이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제 1의 인생,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맞이한 인생3모작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 중에 스승이 있다는  
초심으로 앞으로도 주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저만의 인생3모작을 가꿔나갈 것입니다.”**





# 다시, 시작

다시 잡(Job)은 신중년들의 희망 만들기

## 기업 부문 및 유관 기관 부문

대 상 / 한국후꼬꾸(주), 박재완

우수상 / 주식회사 지에프테크, 정숙명

장려상 /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강기선

장려상 / 성남산업진흥원, 김정대



대상

박재완 / 한국후꼬꾸(주) 관리부 부장

## 노사발전재단을 만난 것은 신의 한 수

박재완 씨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2년 전, 안산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고 이후 이 회사의 인사·총무 담당 부서장으로 센터의 도움을 받아 '경력직 채용'에 성공했다. '구직자' 입장에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처음 만났고, '구인자'로 두 번 만나 모두 '해피 엔딩'을 맞이한 것이다. 한국후꼬꾸(주) 박재완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십시오.  
확실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군을 시작으로 오일가스(Oil & Gas) 산업 분야를 거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까지 약 30여 년간 인사·총무 부서에서 경력을 쌓은 이른바 ‘정통 인사맨’입니다.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2018년 8월, 안산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한국후꼬꾸(주) 인사·총무 담당 부서장으로 채용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후꼬꾸는 자동차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주는 내연기관 핵심 부품인 ‘댐퍼 풀리(damper pulley)’와 차량용 와이퍼의 고무 부분에 해당하는 와이퍼 블레이드(wiper blade)를 생산하는 업력 30년 이상의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본사가 있고, 충남 보령시에도 생산 시설을 갖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국후꼬꾸 보령공장 보전부(Maintenance) 부서장이 갑작스럽게 사직함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하게 됐습니다. 공장의 전반적인 설

비와 여러 기계, 장치류에 대한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보전부는 공장의 핵심 부서로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부서장 채용을 계획했습니다. 곧바로 안산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저는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한국후꼬꾸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완입니다.”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사인 한국후꼬꾸는 과거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추진 사업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평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회사에 입사할 당시 센터의 도움을 입어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SOS’를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센터의 추천으로 전공 분야와 직무 수행 경력을 갖추고 전기기사 자격증까지 보유한 신입 부서장을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취업난’이라고 하지만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 그중 제조 회사의 입사 지원율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인사나 재무 등 행정직이 아닌 현장 전문 기술직의 경우 1명을 뽑는 데 많아야 4~5명의 지원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어떤 기관의 일자리 추천보다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센터에서 추천한 인원들은 해당 기업의 ‘잡 디스크립션(job description)’에 가장 적합한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장 큰 장점은 센터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업종별 인재 풀(pool)이 40~50대에 특화된 점입니다. 채용 상담 접수 하루, 이틀 만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 주실 정도로 인재 데이터베이스(DB)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여 년간 인사 총무 업무를 담당해 온 부서장으로서 사전에 DB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빠른 피드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 여러분! 회사 소재지 주변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십시오. 확실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구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저하지 말고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각 센터의 담당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젊은 시절에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정년 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하면 더할 것 없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혹은 은퇴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과 단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혼자 헤쳐 나가려 하지 말고 주변에 SOS를 청하고, 도움의 손길을 받으십시오.

실제로 50대 초·중반을 넘어서 자의가 아닌 외부의 상황과 경영 환경에 의해 갑자기 퇴직하게 됐을 때 비참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한 회사에서 10년 내지는 20

년간 근무하다 실직을 당했을 때 절망감마저 느낍니다. 저 역시 한국후꾸꾸에 들어오기 전 안산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정미 수석컨설턴트님과 직접 만나 상담도 하고, 전화로 이야기도 나누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차례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저의 아픔에 공감해 주려 노력하고, 정서적으로 위로를 해주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30여년간 ‘인사맨’으로 일해 오며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30년 전보다 체력과 순발력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수준 높은 업무 성과를 냈을 때 쾌감을 느낍니다. 회사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에 대한 답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여러 회사에서 체득한 저만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아, 내가 정말 살아 있구나!” 느낍니다.

제가 ‘구직자’로서 안산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도움을 받아 재취업을 하고, 다시 ‘구인자’의 입장에서 신규 부서장 채용에 성공한 것처럼 저 역시 퇴직 후의 시간은 ‘봉사’에 힘쓸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쌓은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손길을 내밀며 새로운 꿈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신중년은 인생3모작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01**  
20년 동안  
인사총무병과  
직업군인으로  
복무

**02**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해  
노력했던 일

**03**  
제조업체 인사 및  
총무 담당자로서  
회사를 위해  
일했을 때

**04**  
직장에서 같이  
일한 동료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했던 일

**05**  
직장 생활 동안  
지각, 조퇴,  
결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



우수상

정숙명 / 주식회사 지에프테크 이사

##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으로 생산성 올리고 평판도 높이고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화장품 부자재 전문 기업 주식회사 지에프테크는 파주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기업 중 하나다. 실제로 생산성이 10%가량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고 신규 인력 채용에도 성공했다. 지에프테크 인사 담당 정숙명 이사를 통해 그 비결을 들어본다.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 차원에서도 직원들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중년 인생3모작’은 주식회사 지에프테크에 꼭 필요한 말입니다. 현재 재직 중이거나 새로 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다가 저마다의 사정으로 인해 다시 인생3모작을 준비하는 이들이기 때문인데요.

중소기업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이 많다 보니 늘 시간에 쫓기며 일하게 되어 놓치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놓치는 부분은 직원들 간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력 관리’는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업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중소기업, 그중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 대부분은 대중교통이 좋지 않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과 비교하여 낮은 임금이 더해져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실제 채용을 하더라도 직원들 간의 크고 작은 마찰로 인해 퇴사하는 인원도 많아 항상 조직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

몇 해 전 파주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김경숙 책임컨설턴트님이 우연히 우리 회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기념품과 함께 밝은 미소로 회사를 찾아와 무료로 워크넷 사이트를 이용한 구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침 화장품 관련 용기 사업의 업무량이 많아져 인력 충원이 필요하던 차에 큰 기대 없이 구인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의 채용 조건에 맞는 구직자들과 함께 회사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채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신규 채용 계획이 생기면 습관처럼 김경숙 책임컨설턴트님에게 연락을 드려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은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길어진 기대 여명을 고려해 생애 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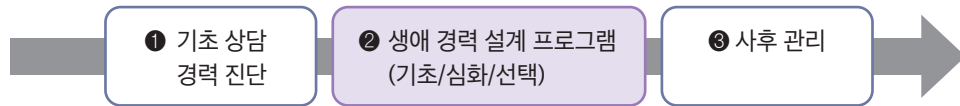




**<생애 경력 설계 온라인 교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  
(www.lifelongedu.go.kr)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 프로세스>**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 프로세스			
프로세스	기초 과정(6H)	심화 과정(6H)	선택 과정(2~3H)
과정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년기 생애 과업 이해</li> <li>직업 역량, 가치관 분석을 통한 미래 경력 대안 탐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애 과업에 따른 실천 역량 강화 및 탐색</li> <li>미래 경력을 위한 장·단기 능력 개발 계획 수립</li> </ul>	(자산 관리) 은퇴 소득 확보 및 은퇴 자산 지키기 (관계) 새롭게 맺는 든든한 사회적 관계 (여가) 다양한 활동으로 삶의 의미 키우기 (건강) 건강한 노후와 웰다잉 준비
재직자	연령대별	40대 경력 전성시대	
		50대 경력 전성시대	
		60대 경력 전성시대	
업·직종별		40대 경력 전성시대	
		50대 경력 전성시대	
구직자	일 개념의 확장(6~20H)		

파주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도 무료로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생3모작 관리를 비롯해 평판 관리,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육 종료 후 성격 검사를 하면서 서로의 성격이 다름을 인정하고 직원들 간의 반목이 줄어들고 실제 생산성이 10%가량 향상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또한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채용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최근 직원들로부터 지에프테크가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직원을 관리하는 수준은 대기업 못지않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직원들과 한배를 탄 식구이니 은퇴하는 날까지 즐겁게 일하길 희망하며, 함께 걷는 동행을 꿈꿉니다. 그 동행에는 회사와 직원뿐만 아니라 파주상공회의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함께 있음에 더욱 힘이 나고 든든해집니다. 우리와 더불어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려상

강기선 /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기업지원실 매니저

## 신중년 취업 최전방 승리 이끈 연대의 힘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기업지원실의 강기선 매니저는 지난 한 해 군산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중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 및 경력 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업의 최전방에서 중년 직원들의 성공적인 인생3모작을 지원하고 있는 그를 만나보자.

긍정적인 인생3모작 준비와  
경력 관리를 위해서는  
직장 커리어 못지않게  
자기 계발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 융합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설립되었습니다.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가 참여하는 캠퍼스관을 비롯해 70개 기업 연구소가 입주한 기업연구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주로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혁신과 애로 기술 해결,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대학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대학과 기업, 기업과 인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군산국가산업단지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2017년 7월 군산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100만 서명 운동과 1인 시위, 범도민 결의대회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실은 가동 중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도 군산

공장에 대해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 조정을 단행해 지역 경제에 타격이 컸습니다. 여기에 GM 군산공장까지 철수하면서 군산의 지역 제조업 생태계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북 최대 산업단지인 군산국가산업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외 경제 환경 악화, 투자 분위기 위축, 일부 입주 기업들의 인원 감축·조업 단축 등이 겹치면서 침체 분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의 고용 상황 역시 악화 일로로 치달았고,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던 중장년층의 실직률이 증가하며 고용 불안이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역시 채용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군산산단 내 기업들의 채용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된 저 역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업체와의 채용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고민이 늘어만 갔습니다.

막상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던 차에 군산 고용 위기 지역에서 기업 전직 지원과 생애 경력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김인수 소장님을 처음 뵙고 미팅을 통해 군산산단 내 중장년, 신중년 재직자들에게 경력 관리와 은퇴 후 인생3모작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소개받았습니다. 김 소장님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군산 지역 내 기업 지원 사업에 중장년 재직자 교육 기회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와 함께 손잡고 신중년 고용 문화 촉진 사업을 계획·추진했습니다. 군산 지역 일자리에서 퇴직한 중장년층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중년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노동 환경 개선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동안 군산국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 우수 기업 공모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중년 고용 문화 촉진 사업의 지향성과 향후 기대 효과, 기업의 신청 자격 등을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우수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주)우남기공을 비롯한 10개 기업에는 노무 환경 개선 등 컨설팅 지원과 재직 근로자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7월에는 신중년 고용 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지역 기업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 희망 기업을 직접 찾아가 생애 경력 설계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생소했습니다. 융합원에서 교육을 준비하는 것도, 입주 기업 중장년 재직자들이 교육을 받는 것도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김인수 소장님의 주도하에 교육은 짜임새 있게 전개되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는데,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갈지 막막해하던 그들의 고민에 귀 기울일 수 있다는 점이 참 뿌듯했습니다.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대한 자신의 변화와 노력이 왜 필요한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긍정적인 인생3모작 준비와 경력 관리를 위해서는 직장 커리어 못지않게 자기 계발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을 마친 참가자분에게서 “만족도 높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인생3모작을 잘 준비하겠다.”라는 말씀 한 마디를 들었을 때 그동안의 고생과 걱정이 눈 녹듯 녹아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만나  
지역 중장년층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도와드릴 수 있어  
사업 담당자로서 보람이 컸습니다.”**

앞으로 군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군산 지역 제조업의 회복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고난의 행군’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 지역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고, 중년 재취업 고용 문화가 정착되어 더 많은 이들이 노사발전재단 재취업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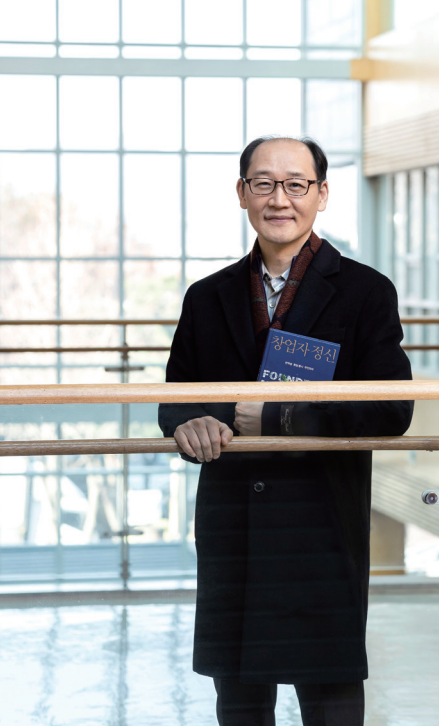
장려상

김정대 / 성남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 총괄매니저

## 기술 창업 페이스메이커로 새 희망을 선물하다

성남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의 김정대 총괄매니저는 경기 지역 예비 신중년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다. 그는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함께 '창직 전문가'로 은퇴 후 기술 창업에 도전하는 중장년의 인생3모작 설계를 돕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 창업이라고 해서 엄청 대단한 걸 만  
들거나 마냥 어려운 줄로만 알았어요.”

저는 성남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성남중  
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예비 창업자 대상 기  
술 창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대입  
니다. 지난 8월,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일자  
리희망센터에서 진행한 예비 창업 지원 프로그  
램 강의에서 한 교육생이 했던 이 말씀이 귓가  
에 맴돕니다. 당시 저는 교육 프로그램 중 기술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담당했었습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창업과 기술

창업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기술 창업의 쉬운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등 누구  
나 기술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에  
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안전하게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  
습니다.

지난 2020년, 창업진흥원과 노사발전재단의 기관 간 협업 추진으로 중  
장년의 체계적인 기술 창업 지원을 위해 성남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노사발  
전재단 경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경기센터)와 함께 연계 활성화를 위해 노  
력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경기센터의 예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멘토  
링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섭외를 담당했습니다. 교육 대상자를 고려하여  
기존 전문 강사 풀(pool)에서 가장 적합하고 검증된 전문가를 섭외하기 위  
해 힘썼습니다.

경기센터의 예비 창업 지원 서비스와 연계된 ‘실전 창업 과정’에서는 멘  
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기술 창업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한 교육생들의 실무·실습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아이디어에 관

한 마켓 리서치를 통해 잠재 고객의 반응을 알아보고, 아이디어에 대한 인사  
이트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예비 창업 지원자 프로그램 수료생 3명이 실전  
창업 과정에 입문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디어 선정을 마친 예비 창업자로 제  
품 역시 기초적인 단계일 뿐이었는데, 교육 과정을 통해 점차 기술 창업에 활  
용할 제품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품을 설명하는 상세 페이지  
를 직접 만들어보고,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잠재 고객에 대한 설문 조사도 진  
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모의 크라우드 펀딩까지 실질적인 마케팅 경험이 더해  
져 제품 개발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내년도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여 사업화 자금을 받았으며 창업에 대한 계획을 모두 마쳤습니다.

**“신중년 인생3모작을 계획하는 분들이 센터를 찾아주셨어요.  
이른바 ‘창직’이라고 하죠. 창업을 통해 취업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창업에 대해 알려드리고, 정부의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며  
기술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초기~1년 차를  
시작으로 1년~3년 차, 3년~7년 차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  
다. 우리 센터의 경우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주로 담당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위해 꼭 필요한 아이디어이션 기획 단계부터 사업 계  
획서 작성, PT 발표 방법 등 실제 기술 창업 전반에 필요한 실무 과정을 교  
육합니다. 특히 멘토와 멘티의 연결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과정  
을 경험하게 됩니다. 멘토는 교수부터 창업 분야 전문가, 실제 기술 창업에  
성공한 대표까지 다양합니다. 인사, 노무부터 세무 회계, 법률 관련 지원까지  
외부 전문가와의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성공적인 기술 창업을 돕습니다.





2021년 성남시민학교 디지털 홍보 전문가 양성 과정

이들에게는 성남산업진흥원의 창업 준비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나 관리비 등 고정비를 아낄 수 있고, 이곳에 모인 예비 창업자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식판 오른쪽에 있는 식기 거치 위치를 왼쪽으로 바꾼 아이디어 식판부터 스마트 글라스(안경)에 들어가는 렌즈에 이르기까지. 우리 센터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가 제품화로 이어져 세상의 빛을 볼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신중년이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신중년 세대에 접어들었지만, 이제는 소위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고민에서는 한 발짝 벗어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도전했으면 합니다. 창업이라는 매개체를 통

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세상을 바꾸는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신중년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현재를 즐겁게, 기쁘게 살면 성공은 따라올 테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잘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S전자도 다녔고 외국계 회사의 임원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속된 말로 너무 잘나가다 보니 갑자기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6년 전, 창업 기관에 오기 전 실제 창업에 실패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화려한 이력보다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신중년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일이 기쁘고 보람칩니다.

앞으로도 중장년 예비 창업자들의 애로 사항을 들으며 그분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김정대가 되고 싶습니다.



# 다시, 시작

다시 잡(Job)은 신중년들의 희망 만들기



## 업종 특화 서비스 부문

대 상 / 윤현옥

우수상 / 김군태

장려상 / 현진호

장려상 / 신승호

장려상 / 빈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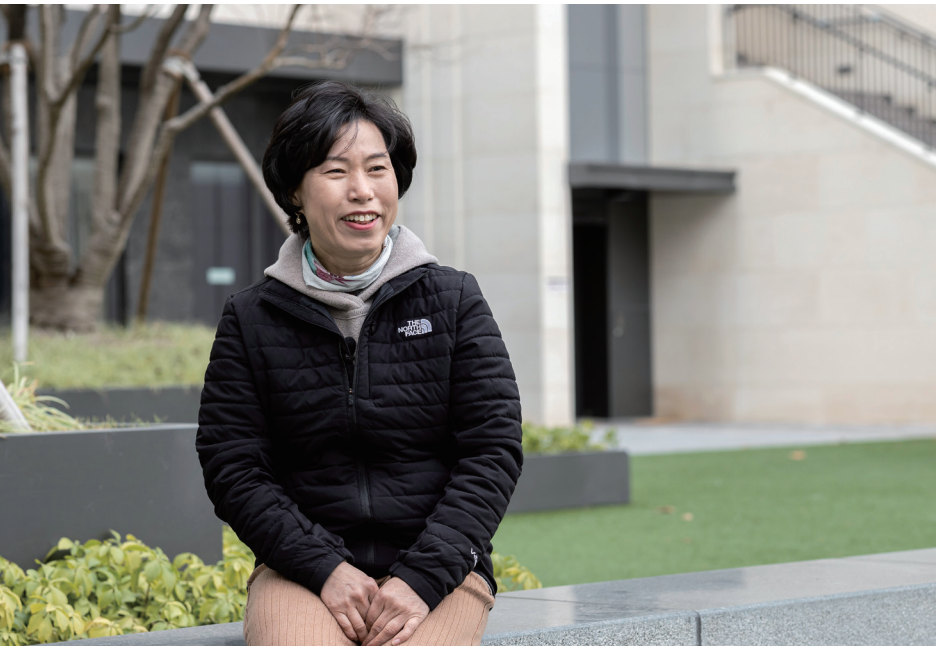
대상  
윤현옥

## 식당 폐업 때 흘린 눈물이 글로벌 기업 취업하며 감동의 눈물로

윤현옥 씨는 10여 년간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문을 닫고 제2의 인생을 계획하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소상공인 대상 특화 전직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말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세계적 기업의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로 인생3모작을 설계 중인 그녀를 만나봤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0년 봄, 서울 거리에는 눈물 젖은 폐업 안내문이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텅 빈 점포엔 ‘임대 문의’가 나붙고 큼지막하게 ‘점포 정리 세일’이라 써 붙인 옷 가게는 어느 동네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문 닫는 점포가 늘면서 폐업을 체계적으로 도와준다는 ‘폐업 컨설턴트’까지 등장했을 정도니까요.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여 년간 프랜차이즈 죽 가게 사장으로 일해 왔던 저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머금고 폐업 안내문을 써 붙였습니다. 2010년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픈한 죽 가게. 몇 년 새 주변 상권은 커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도 제법 생겼지요. 제 인생에 ‘봄날’이 찾아온 기분이었어요. 서울 노량진 포장마차 토스트 가게를 시작으로 퓨전 호프 가게를 거쳐 제 이름을 내건 첫 프랜차이즈 죽 매장까지. 지나온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제 분신과도 같은 가게를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바이러스로 인해 문을 닫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0여 년간의 노력이 1년여 만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전쟁이 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우리 가족의 ‘자랑’이자 ‘훈장’과도 같은 죽 가게와 기약 없는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고민 끝에 하루라도 젊었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심정으로 과감히 폐업을 결정했으나 막상 가게 문을 닫자 이제 어떻게 먹고살지 머릿속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노란우산’ 폐업자 재기 지원 교육을 접하게 되어 인생 2막을 위한 ‘희망지킴이 과정’ 교육을 수료하며 본격적인 인생3모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특화 전직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신선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 강의는 나의 강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찾아보고 설계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직자 프로그램 강의 역시 개개인의 경력과 성향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인생3모작을 준비하는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실제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김현아 컨설턴트님의 도움을 받아 세계적 기업을 대상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작성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가상 면접도 경험했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소개서 한 줄 쓰는 것도 막막했는데, 실제 강의를 수강하며 경력부터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등에 대한 항목을 써나가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구직 전략과 정부 지원 제도 강의 역시 다양한 채용 사이트와 일선 기업의 채용 공고 등을 통해 신중년이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관련 기관에서도 중장년 일자리 발굴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제공하는데, 실제 정보를 많이 접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



화하고 마침내 세계적 기업 애플코리아에 이력서를 접수했습니다. 결과는 1차 서류 합격이었습니다. 7월 7일 여의도 IFC몰에서 열린 애플스토어 채용 설명회에 초대받아 최종 합격을 향한 3개월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면접자들이 행진하듯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결혼식이 떠오를 정도로 가슴속 떨림이 컸습니다. 리더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현재 시니어 직군에서 근무 중인 '유미'의 첫 입사 경험을 들으면서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가치관과 열정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자."라는 가치관은 그동안 내가 바라고 꿈꿔왔던 행복의 가치관과도 일치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세 달간 총 5번의 면접을 거쳐 드디어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그동안 합격이란 단어만 머릿속에 아로새기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처음 페이스타임(facetime) 면접 때는 휴대폰 거치대를 준비하지 못해 휴대폰 매장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어요. 화상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스티디룸을 얻기 위해 동네 7곳의 장소를 발로 뛰어다니며 섭외한 일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간절함이 없었더라면 이루지 못했을 꿈이었어요. 10년 전 처음 죽 가게를 열었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도전했으니까요. 노사발전재단과 김현아 컨설턴트님을 만나 제 인생에 새로운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자녀가 셋인데 아이들도 들어가기 힘든  
세계적 기업에 들어갔잖아요. 오르지 못할 산을 오른 것 같아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현재 교육 중인 17명의 동료 중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는 저 혼자예요. 나머지 16명은 모두 청년층입니다. 시니어는 혼자여서 조금 외롭기도 한데 젊은 친구들과 같이 일할 땐 굉장히 신선함을 느끼고 제 안에 숨어 있는 열정

이 끊어오르기도 해요. 평소 많이 접해 보지 않았던 컴퓨터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프랜차이즈 죽 가게 사장으로서 경험했던 '경영자'의 마음과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로 '고객'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윤현옥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신중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꿈을 가지세요! 꿈을 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 역시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면 도전 의식이 생기고, 열정도 커지며 새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신중년, 우리 세대들은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에요. 신중년은 '새로운 시작'과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경로와는 전혀 다르게 그동안 축적해 온 일의 경험을 토대로 여유롭게 새로운 일에 도전할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신중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의 인생 발자국

- 01 큰아이가 나의 대를 이어 유치원 교사가 됐을 때
- 02 처음 노량진 토스트 가게를 열었을 때
- 03 직원 수 15명의 퓨전 호프집을 운영했을 때
- 04 프랜차이즈 죽 가게를 열고 10년 동안 운영했을 때
- 05 바로 지금, 노사발전재단을 만나고 세계적 기업에 합격했을 때

우수상

김군태

## 맞춤 전직 프로그램 통해 다시 여는 제2의 청춘

김군태 씨는 30여 년간 은행에서 근무해 온 베테랑 은행맨이다. 은퇴 후엔 금융업 종사 경험을 살려 '직업상담사'로 인생3모작을 준비 중이다. 노사발전재단 금융특화센터의 금융업 퇴직자 교육을 받고 자존감을 되찾은 김군태 씨의 도전기를 들어봤다.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신중년들의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35년간 몸담았던 은행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1980년 서울의 한 상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신입 행원으로 입행해 55세에 지점장으로 은퇴하기까지, 강산이 세 번 변하고 대통령이 여섯 번 바뀌는 동안 ‘은행원’이야말로 나의 천직이라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씩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평생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자 걱정이 앞섰습니다. 명예퇴직 다음 날 곧바로 집 근처 도서관으로 향해 영어 회화책을 펼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동안 부족했던 영어 회화 공부에 매진하기로 마음먹고 집과 도서관을 왕복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먼저 은행을 퇴직하고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의 소식을 듣고 나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지를 찾는 해외 관광객을 안내하고 통역하는 일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2019년 1월 25일, 마침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3수 끝에 취득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주위에서도 자격증만 취득하면 재취업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들 말했고, 저 역시 자신감이 있었

습니다. 하지만 여행사 취업 사정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행 다닐 때 알고 지내던 여행사 사장님께 일자리를 부탁했지만, 내일모레 환갑을 앞둔 중년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미련 없이 여행사 취업을 포기하고 그동안 은행에서 익힌 수출입 업무 경력을 토대로 몇몇 무역 회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 곳에서도 면접이나 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 5년 차, 이제는 1차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세가 된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모아놓은 퇴직금도 서서히 바닥을 보이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4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그야말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에 한 줄기 빛을 비춰준 곳은 바로 노사발전재단이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처럼 노사발전재단 금융특화센터에는 금융권 퇴직자를 위한 맞춤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초 상담을 받은 뒤 2021년 3월 26일, 마침내 금융 업종 특화 교육에 참여했고 9월 16일에는 전직 지원 전문가 입문 과정도 수료했습니다.

특히 금융 업종 특화 교육 프로그램 ‘서민 금융 입문 과정’을 통해 직업 능력개발 훈련 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증권 외환 훈련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8월 30일부터는 같은 대학 능력개발교육원에서 ‘과정 평가형 직업상담사 2급 과정’에 지원하여 본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금융권 퇴직 후배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제가 경험한 특화된 프로그램과 직업 상담을 통해**

**그들의 향후 인생 설계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노사발전재단 금융특화센터를 운명처럼 만난 것처럼요.”**

이제 은행맨에서 직업상담사로 인생3모작을 꿈꿉니다. 직업상담사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추천하고 취업을 도와주는 일을 담당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퇴직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에게 적합한 직업이나 일자리를 추천해 주는 중장년 대상 직업상담사에 도전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처럼 신중년들의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훌륭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며,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

요즘 흔히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해 놓은 정년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55세에 퇴직하고 얼마 전 환갑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 나이는 젊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자아실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신중년’이란 어릴 적 꿈을 다시 찾는 새로운 도전이자 인생 탐험이 아닐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 가슴속 한편에 있는 비전과 사명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은행원이 되기 전, 유년 시절 어느 날 교사를 꿈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인생3모작을 꿈꾸는 신중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 직업 인생에 길잡이가 되는 직업상담사를 꿈꿉니다. 돌이켜보면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 여러분(노사발전재단 우수사례 집 취재팀)이 오셔서 저 한 사람을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기사도 작성해 주시고, 참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작은 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은행맨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운명적으로 노사발전재단을 만나 금융 특화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다시 ‘직업상담사’에 도전하기까지, 늘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도록 새로운 길을 닦아 불 겁니다.





장려상

현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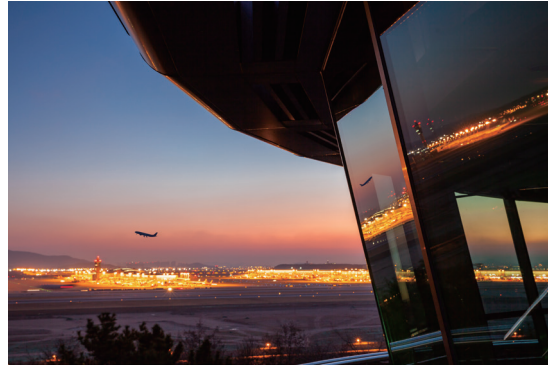
## 안갯속 '플랜 A' 대신 강사 자격증 따고 이륙 준비

10여 년간 항공업계에서 일해 온 현진호 씨는 코로나19 휴직 기간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항공업 특화 경력 개발 프로그램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과정을 수료하고, 최근 CS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인생에 플랜 A만 있는 건 아니라는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현진호 씨의 항공업 특화 경력 개발 프로그램 수료기를 만나보자.



저에게 신중년은  
'또 다른 인생을 개척해 나아갈 무기'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저는 지난 10년 동안 습관처럼 휴대폰 달력을 열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해 왔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했던 터라 주말과 밤낮의 개념이 없었고, 매달 근무하는 날짜와 쉬는 날짜가 달랐습니다. 예전엔 동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는 사람은 아직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과 평범한 일상을 오랜 시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약 없는 휴직과 함께 마치 ‘바른 생활 사나이’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과거 세계적인 질병 사태와 견주어 곧 끝나라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어도 상황은 호전될 기미가 없었고, 저의 삶 역시 이미 항공업계 종사 직장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시간이 많으니 깊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항공업계 직업 경력은 물론이고 미래에 대해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항공업 특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만나다.”**

우연한 기회로 회사 게시판을 통해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주최 항공업 특화 경력 개발 프로그램 CS 과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다년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을 쌓은 전·현직 CS 강사님들이 직접 초빙되어 본인들의 강의 역량부터 CS 강사로 강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개념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요컨대 각종 교수법부터 강의 준비, 발성 그리고 청중을 이끄는 방법 등 CS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A부터 Z까지 전수해 주었습니다. 강의 자료 또한 강사님들 고유의 특성이 담겨 다채로웠고 강사님들의 실전 경험에 기반한 살아 있는 강의들이 서로 조합되어 빈틈없는 강의들이었습니다.

모든 강의가 놓칠 수 없는 과목들이었으나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강의는 ‘선배와의 만남, 현직 강사에게 듣는 현장의 소리’였습니다. 앞선 강의들은 CS 강사가 되기 위한 실전 기술과 자질을 쌓고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이 강의는 전직 CS 강사 선배님들의 현장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CS 강사가 되기 위한 조건부터 수익, 해당 업계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항공업 특화 경력 개발 프로그램 CS 과정

‘항공업 특화 경력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고용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업종에 특화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점 등 피부에 와 닿는 경험과 근거에 기반한 에피소드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저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동아리 활동이라는 소규모 집단 활동을 통해 교육 이후에도 동기 교육생들과 주제 발표 및 집단 토론의 장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사고의 전환 등 다양한 CS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교육 전반의 운영 및 진행은 물 흐르듯 부드러웠으며 해당 과정 진행자의 열정으로 인해 그 진심이 교육생들에게 전해져 더욱 만족스러운 교육 경험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즉 공공 기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그간 저에게 다소 부정적이었던 공공 기관의 이미지를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 이후에도 진행자와 교육생들 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정보 공유 및 우호적 관계 유지를 통해 비록 시작은 작은 교육 과정 하나였지만 이후엔 직업적 기회를 넓혀가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밭’을 일궈보자!”

현재 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휴직 중이고 당분간 전직 계획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항공업 특화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또 다른 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수료 이후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작은 실천으로 CS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미래에 발전할 저를 위한 작은 밑거름들을 꾸준히 뿌려 밭을 일굴 것입니다. 제가 아직 정식 CS 강사로 데뷔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관련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일방적으로 화려한 지식만을 주입하고 전달하는 강사가 아닌, 청중과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동반자’ 같은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플랜 A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이나 관심에만 지나치게 몰두하여 달려가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달리면서 옆도 되돌아보며 인생에 다양성을 부여한다면 꼭 자신이 목표했던 ‘플랜 A’가 아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직접 체험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망설이지 말고 자신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들에 도전해 보세요.”**



장려상  
신승호

## 누구나 아름다운 풍경 누리도록 약자의 여행 길잡이 되다

신승호 씨에게 제주는 기회의 땅이자 약속의 땅이다. 광고업계 사진가 은퇴 후 제주로 내려와 '무장애 여행 매니저(트래블 헬퍼)'로 인생의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58년 개띠' 신승호 씨의 인생3모작 도전기를 들여다보자.



트래블 헬퍼라는  
직업은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할지 막연하게 고민하다 놀랍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생3모작이라는 단어는 서점의 베스트셀러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도 넘쳐나는데 정작 저에게는 ‘알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통신사 특과원을 시작으로 명예퇴직 후 광고업계로 뛰어들어 ‘광고 사진’과 함께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빠른 변화에 뒤처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저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현상’과 ‘인화’였으나 컴퓨터라는 괴물이 사진업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인 사진 촬영과 현상, 인화 등 일련의 작업 과정이 역사의 뒀안길로 슬며시 접어드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은 중장년들은 ‘컴맹’으로 전락하고 오프라인 사진가들은 현장을 떠나야 하는 시대의 흐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는 게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노후의 삶을 계획하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없었던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무장애 여행 매니저(트레블 헬퍼)과정



제주MBC 특집 다큐멘터리 <지금은 경력 이음시대> 트레블 헬퍼 방송 장면

변화하는 세상을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기에 뒤늦게나마 또 다른 배움으로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며 ‘할 일’을 찾았습니다. 2년 전 제주로 내려오면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육십 평생 찍어온 사진과 관련된 일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드론 영상 촬영’이 가장 핫하다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무인 헬리콥터, 무인 비행기, 무인 멀티콥터로 대표되는 드론 영상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독학으로 드론 촬영을 숙달, 지금은 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중급 수준 경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로 젊은 세대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일 뿐, 중장년에게는 ‘버거운 자리’가 되더군요. 드론 영상 역시 인공지능(AI)과 가상 현실(VR) 등 또 다른 기술과 접목이 이루어져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진로를 고민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둘이 공부해 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충분한 재력이 뒷받침된다면 어떤 일이든 자신의 역량을 펼치며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차가

웠습니다. 생계를 담당해야 하는 많은 중장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지날수록 서러움이 들고, 초라해져 갔습니다.

서울에서 직업 활동을 할 때, 종로 탑골공원에서 소일하는 노인들을 보며 노후의 '아름다움'보다 '아픔'을 바라보았기에 "내 노후는 저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다짐했건만 조급함을 버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제주의 특성은 무엇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또 사회에 봉사할 일은 어떤 게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를 통해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시행하는 '무장애 여행 매니저(트래블 헬퍼)' 교육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 트래블 헬퍼를 처음 봤어요.**

**그들이 인생3모작을 설계한 분들이더라고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관광 약자들의 관광 도우미 역할에 관심이 갔어요. 나중에 이 일을 하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3일간 진행된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트래블 헬퍼 과정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저를 포함한 세 명이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치도 살피고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교육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세 명의 나이가 저와 같은 '58년 개띠'였습니다. 강수영 소장님과 양훈석 컨설턴트님의 따뜻한 배려 속에 3일간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트래블 헬퍼라는 직업은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주의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함께하는 건강한 삶. 노약자, 장애인들의 여행길에 길잡이가 되어 여행이라는 콘텐츠 속에 행복과 꿈을 전해 주는 안전 해설가라는 보람. 이러한 목표를 품게 해준 것은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제주두리함께' 대표님,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교육과 현장 실습 덕분이었습니다.

현재는 네이버에서 만든 중소기업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홍보 영상을 계획하며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여행할 열린 관광 코스들을 드론 기술을 활용한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여행 코스마다 드론 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술적 능력을 지니고 트래블 헬퍼로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응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으로 찍은 영상물을 상품화하여 여행 상품의 필수적인 패키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주의 풍경을 마치 영화 속 그림 같은 한 장면으로 추억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개발·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저에게 신중년이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가장들은 그동안 내 삶과 함께 아내와 자식들의 삶을 책임지면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이제 다 던져버리고 '나만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삶을 마감할 때 "그래도 보람 있게 살았구나." 하면서 말이죠.

**“저와 같은 58년 신중년 개띠들의 희망 합창은 이제 시작입니다!”**





장려상

빈원호

## 손주 셋 둔 할아버지? 난 여전히 금융계 현역 강사

35년간 은행과 금융 공기업, 금융 회사에서 근무한 '금융맨' 빈원호 씨는 서울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서 컨설턴트로 일자리 최일선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다. 일흔을 넘어 여든까지 컨설턴트로 일하길 희망하는 그의 사연을 소개한다.



지난 1997년, 제 나이 마흔다섯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로 다니던 은행이 공중분해되며 강제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시중 은행에 행원으로 입사해 마흔 초반 지점장에 오르며 큰 걱정 없이 승승장구하던 인생에 첫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시중 은행의 잘나가는 지점장이었던 저는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마흔 중반에 인생2모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인의 도움으로 금융 공기업 계약직으로 자리를 옮겨 가까스로 구사일생, 인생2모작을 시작했습니다. 은행 근무 시절에 비하면 하는 일이나 대우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5년을 버텨왔습니다. 다른 사업이나 장사에 소질이 없었고, 특별히 갈 곳도 할 일도 마땅치 않았던 저에게는 생애 두 번째 직장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5년 동안의 금융 공기업 계약직 근무를 마치고 일반 금융 회사의 임원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직원 수 1500여 명의 회사에 상무로 들어가 2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은행에서 27년, 은퇴 후 금융 관련 공기업과 기업에서 7년을 근무하며 총 35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어느덧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다시 직장 공백기를 맞이하다 보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약 4년 가까이 사실상 실업자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다가 우연히 노사발전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말 처음 노사발전재단을 접하고 이듬해 4개월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며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노사발전재단 금융특화센터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대들이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중장년의 개념도 없던 그때 재단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죠.”**

2010년 노사발전재단 금융특화센터 교육 수료 후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강의’와 ‘상담’이라는 두 가지 어젠다를 제시해 준 재단 덕분에 인생 3모작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용상담사와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자격증을 하나하나 취득했습니다.

2012년, 마침내 전북 군산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산업체 출신 겸임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환갑을 앞둔 59세, 서울 상경 40년 만에 처음 가족과 떨어져 자취 생활이라는 것도 해봤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군산에 내려가 매일 학생들에게 금융과 재무 강의를 했습니다. 은행과 금융 공기업 근무 경력을 살려 그동안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면접 노하우 등을 알리며 새로운 적성을 찾았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산학 겸임 교사 겸 취업지원관으로 강의는 물론이고 취업 상담까지 담당하며 업무 범위를 넓혀나갔습니다. ‘강의’와 ‘상담’이라는 새로운 적성을 일깨워준 노사발전재단 금융특화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민 금융 전문가 과정



이후 예금보험공사 소속 ‘생활 금융 교육 전문 강사’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 교육 전문 강사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남부캠퍼스 소속으로 생애 설계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시 중장년들의 재취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그들의 제2 인생을 설계하는 데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가치포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비영리 금융 기관에서 취약 계층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노사발전재단을 알게 된 지 10년이 훌쩍 흐른 올해 ‘노사발전재단 금융특화센터’의 교육 수강 서비스를 신청, 수료했습니다. 지난 7월 노사발전재단 금융센터에서 주관한 ‘생애 경력 설계 + STEP 3’와 ‘전직 스쿨 1인 미디어 직업 체험’ 과정을 수료하는 성취를 맞았습니다.

**“주위에서 퇴직한 선후배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그들이 못 한 일을 하고 있으니깐요. 이 모든 걸 60대에 이뤘다는 게**

**스스로 보람차고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저와 같이 은행이나 보험, 증권과 같은 금융권에서 은퇴한 후배들에게는 노사발전재단의 금융 특화 프로그램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금융권에서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재단의 금융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을 위한 기본기를 닦고, 재무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한다면 그동안 쌓은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재단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는 초장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신중년분들은 나이를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이는 고정 관념에 불과합니다. “내가 왕년에 잘나갔는데.”, “지금 먹고살 만한데.” 이런 생각들

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 세대와 더불어 사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중년이란 ‘안 가본 길을 힘들더라도 즐겁게 찾아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글을 쓰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반추해 봤습니다. 은퇴 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더는 도전이 힘들다고 좌절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70대 중반, 더 나아가 80대 초반까지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해서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제 나이 예순여덟. 9세, 7세, 5세 된 손주 셋이 있어요.**

**우리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어디 가서도 할아버지 빈원호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 끝 이 아 닌 새 로 운 시 작 —

끝이아닌 새로운시작



# 다시, 시작 Restart!

---

## 2021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발행처 노사발전재단  
주소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6F·7F·8F·10F  
발간등록번호 B552146-전직지원팀-2021-0021-01  
기획·디자인 디가온

---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인터뷰에 응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은 노사발전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시, 시작 Restart!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